

우리가 입는 옷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 패스트 패션의 역습

‘패스트 패션’ 현상을 엮은 패션산업이 전 세계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이나 그 산업을 뜻한다. 영국 ‘가디언’은 ‘패스트 패션’을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에 빗대어 ‘맥패션’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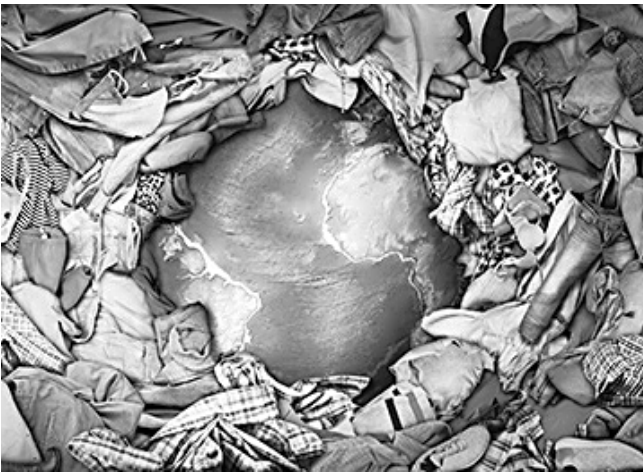
■ 저렴한 가격에 빠른 회전율로 승부하는 ‘맥패션’
지난달 17일 ‘사이언스타임즈’에 따르면 옷값이 싸지면서 유럽과 영국의 의복과 신발의 일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1950년대 30% 이상에서 2009년에는 12%까지 낮아졌다. 2020년에는 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가격은 충동구매와 반복 구매를 유발한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평균 5.5일마다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1인당 섬유 생산량은 1975년에서 2018년 사이에 5.9kg에서 13kg으로 증가했다. 세계 섬유 소비량은 연간 6,200만 톤에 이르는데 2030년에는 1억 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류 상표(패션 브랜드)는 2000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0억 개의 의류 품목이 매년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20년 전보다 400%가 증가한 것으로 그 중 3분의 1은 결국 매립지에 직행하고 이는 매년 7%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의류산업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연간 생수병 500억 개 분량 해상 플라스틱 배출
영국, 핀란드, 스웨덴, 미국, 호주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네이처 리뷰 지구와 환경’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의류산업의 환경비용을 계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지적했다. 연구팀은 생산에서 소비 단계까지 물 사용, 화학 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단 폐기물 등 의류 공급 체계의 환경 영향을 평가했다.

패션산업은 해마다 9,200만 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폐기물의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여기에는 팔리지 않은 제품도 포함된다. 아울러 의류산업은 연간 1조 5,000억 리터에 달하는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는 7,000~1



만1,000ℓ,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2,700ℓ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류산업은 전 세계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폐수를 만든다.

또 해양의 1차 미세플라스틱(제조 단계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질) 오염의 35% 이상(연간 19만 톤)이 의류산업에 기인한다. 의류와 장신구 등 패션산업으로 말미암아 매년 바다에 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배출되는데 이는 생수병 500억 개와 맞먹는 양이다.

대기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섬유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0억 톤이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에 이른다.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이 뿜는 탄소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의류산업의 세계화는 옷들이 가공 과정에 지구를 몇 바퀴씩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이 팽창함에 따라 전체 의류의 3%가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으로 바뀌면 탄소 배출이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의류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까닭에 제조업체들은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인건비가 싼 나라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탄 화력발전에만 의존한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현재 세계 의류의 50% 이상이 만들고 있는 중국 섬유공장들은 매년 석탄을 태워 약 30억 톤의 그을음을 내뿜고 있으며, 이것이 공기를 오염시켜 호흡기와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의류산업은 또 산업 종사자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 사용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한 예로 유럽 섬유 가공 회사 1곳이 직물 1kg 당 466g의 화학물질을 사

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유 생산뿐만 아니라 가죽 생산에도 극도로 잔인하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생산된 가죽 제품은 선진국으로 운송된다. 가죽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은 심장병, 결핵, 천식, 정신적 장애, 피부 변색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패션산업이 유발하는 환경 유해성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이다. 유럽의 경우 섬유제품 화학성분의 잠재적인 유해성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폐의류에 생산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정(REACH)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의복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제품의 화학성분을 수량화하고, 엄격한 검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양의 원유를 필요로 하는 폴리에스테르로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이다. 매립한 폴리에스테르는 분해될 때까지 최소 5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하면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한다.

■ 10번 이상 입을 것 같은 옷만 사기
연구팀은 의류산업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길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방법 개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의 사용 자제 등이 포함돼 있다. 폴리에스테르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현 의류산업의 지배적 물질이다. 연구팀은 또한 의류산업이 좀 더 질 좋고 내구성 높은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복 대여나 재판매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소비자 행동의 전환을 포함한 지속가능 실천 방안들도 소개했다. 소비자 행동의 전환에는 의복 구입 자제와 옷 오래 입기 등이 포함된다. 10번 이상 입을 것 같은 옷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구매하는 식이다. 영국 기후변화공동체(Green Alliance)의 리비 피크는 “‘슬로 패션’만이 산업계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슬로 패션은 환경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품질이 좋은 옷을 만들고 사들이는 활동을 가리킨다. 유기농 및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공정거래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의류 공급 체계를 일컫기도 한다.

SC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평발 (Flat Feet)

무지외반증 (Bunion)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신경종 (Neuroma)

발통풍 (Gout Attack)

발, 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사마귀 (Plantar Warts)

무좀 (Athlete's Foot)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 1pm-5pm 토 9am-2pm

LA 213)352-1090

520 S. Virgil Ave Suit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714)735-8588

5451 La Palma Ave, Suite 26
La Palma, CA 90623

FAX 562)249-8443

TALK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